

## 보도자료

2011년 2월 23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 과장(☎ 750-2250)  
전파방송관리과 이주식 사무관(☎ 750-2254) jooshik.lee@kcc.go.kr

# 방통위, 차세대방송 비전과 추진전략 마련한다

## - 산학연관 협력기반 구축하여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청사진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산학연 협의체인 '차세대방송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월 23일(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차세대방송 발전협의회는 방송통신분야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차세대방송 분야 관련 이슈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구성원들의 종합토론을 통하여 우리나라 차세대방송 분야 R&D 추진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오늘 열린 첫 회의에서는 차세대방송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3D·UHD 방송기술과 스마트TV 기술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차세대방송 비전 수립을 위한 전망과 전략에 대해 종합토론을 가졌다.

특히,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이후의 실감방송 상용화 확보방안, Smart TV가 도래하면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세대 양방향 방송기술 핵심·원천기술의 R&D 추진방안 및 3D·UHDTV 등 실감방송과의 융합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 차세대방송 발전협의회 구성원 : 김태환(KBS 연구소장), 박영수(SBS 본부장), 이상용(CJ헬로비전 상무), 권기정(HCN 상무), 최영익(SKylife 전무), 유희관(KT 상무), 김한수(SKT 본부장), 정태홍(삼성전자 전무), 조택일(LG전자 상무), 임영권(Net&TV 팀장), 이호진(ETRI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장), 정제창(한양대 교수), 손광훈(연세대 교수)